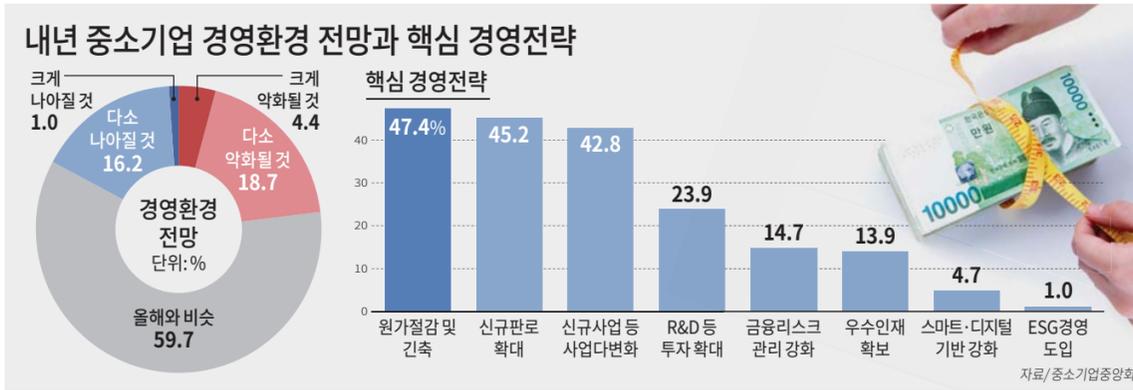


# 중소 10곳 중 8곳 “내년 경영환경, 올해 비슷하거나 악화”

올 내수부진·비용상승에 ‘어려움’ 내년 전략은 긴축·신규판로 확대  
상생금융·R&D지원이 정책 1순위  
노동인구 감소, 중장기 최대 리스크



중소기업 절반 가량이 올해 경영환경이 녹록치 않았던 것으로 평가한 가운데 10곳 중 8곳 이상은 내년 역시 올해와 비슷하거나 더 악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중소기업들의 내년 핵심 경영전략은 ‘원가절감 및 긴축’ 그리고 ‘신규 판로 확대’가 주를 이뤘다.

또 2025년 경영안정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상생금융과 연구개발(R&D) 지원’을 꼽았다.

이는 중소기업중앙회가 10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해 10일 발표한 ‘중소기업 경영실태 및 2025년 경영계획’ 결과에서 나왔다.

조사결과 응답기업 절반(48.8%)은

올해 경영환경을 ‘어려웠다’고 평가했다. ‘어렵지 않았다’고 답한 기업은 16.5%에 그쳐 부정적 의견이 긍정적인 견해에 비해 약 3배 높았다.

올해 경영년의 주요 요인(복수응답)으로는 ‘내수판매 부진’ (74.4%)을 꼽았다. 이어 ‘원자재 가격 상승’ (29.3%), ‘인건비 상승’ (28.9%) 등의 순서였다.

올 한 해 동안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은 ‘거래선(영업·홍보) 확대’

(64%)에 가장 집중했다. 이외에 ‘비용절감 및 구조조정’ (46.2%), ‘자금 조달처 확대’ (30.9%)에도 몰두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경영환경에 대해선 응답기업의 59.7%가 ‘올해와 비슷할 것’으로 응답했다. ‘악화’를 예상한 기업은 23.1%였다. 그러나 ‘호전될 것’이라는 기업은 17.2%에 그쳤다.

중소기업의 내년 핵심 경영전략(복

수응답)으로는 ‘원가절감 및 긴축’이라고 답한 기업이 47.4%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신규판로 확대’ (45.2%), ‘신규사업 추진 등 사업다변화’ (42.8%) 등의 순이었다.

내년 중소기업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복수응답)으로 ‘중소기업 상생금융 지원 확대’ (59.7%)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 지원 확대’

(36.5%), ‘판로 및 수출지원 확대’ (34.2%)가 뒤를 이었다.

중장기적으로 중소기업 경영에 가장 불리해 대비가 필요한 요소로는 중소기업 4곳 중 1곳(27.0%) 이상이 ‘노동인구 감소’를 꼽았다. 아울러 ‘산업변화에 뒤처진 규제’ (18.5%), ‘첨단 기술수준과의 격차 확대’ (15.5%)도 우려했다.

중기중앙회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 중 절반 이상이 내년 경영환경도 올해만큼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만성적인 내수부진이 중소기업 체감 경기에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면서 “올해와 내년 모두 중소기업이 내수판매 부진을 개선하기 위해 원가절감, 신규판로 확대, 사업다변화를 3대 핵심 전략으로 꼽은 만큼 2025년 중소기업의 투자활동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상생금융 및 투자 지원 확대 등 원활한 유동성을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오영주, 탄핵 정국에도 中企 글로벌화 행보

(중기부장관)

제1차 한-UAE 중소벤처위 개최  
페루 장관·대사와 협력 논의도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탄핵 정국’ 등 국정이 혼란한 상황에서도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를 위한 본연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10일 중기부에 따르면 오영주 장관은 이날 정오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UAE 경제부와 ‘제1차 한-UAE 중소벤처위원회’를 개최했다.

한국 중기부와 UAE 경제부가 설립한 중소벤처분야 장관급 협의체인 위원회에는 한국에선 오 장관 외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벤처캐피탈 등 유관 기관·단체 관계자들, 그리고 UAE에선 알리아 압둘 알 마즈루이(Alia Abdulla Al Mazrouei) 기업가정신 특임장관, 칼리파 펀드, 두바이 공항자유구역청, 에미레이츠 개발은행 등 양국에서 120여 명이 참석했다.

위원회 시작에 앞서 양측 장관은 양자면담을 통해 중소기업·스타트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창출하기 위한 위원회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오 장관은 양국의 공통 관심사인 답테크 분야 협력을 제안하고, 올해 문을 연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에 대해 UAE측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오 장관은 “이번 위원회를 통해 한국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 첫번째)이 1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1차 한-UAE 중소벤처공동위원회 및 비즈니스 포럼’에 앞서 알리아 마즈루이 아랍에미리트(UAE) 경제부 기업가정신 특임장관과 양자 면담을 하고 있다. /중기부

과 UAE간 경제협력을 위한 신뢰 관계를 더욱 확고하게 다지는 시간이 됐다”면서 “앞으로도 중소벤처위원회를 정기적으로 열어 한-UAE 중소·벤처 스타트업 분야 협력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양국 중소벤처기업의 혁신과 글로벌 시장 진출 등 공동의 목표를 위한 협력 방안을 계속해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이날 오후 서울 잠실 롯데타워에서 글로벌 벤처캐피탈 51개사 등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K-글로벌 벤처캐피탈 서밋’을 개최했다.

이들 참석자와 ‘글로벌 벤처투자 간담회’도 가졌다.

특히 이 자리에는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 자회사인 파빌리온캐피탈, 세일즈포스 및 아랍코 등 글로벌 대기업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등 운용자산

(AUM) 1조원 이상의 유력 투자기관 10개사 이상이 함께 했다.

당초 간담회에는 오 장관이 참석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국회 본회의가 갑자기 열리면서 중기부에선 임정욱 창업벤처혁신실장이 대신 참석했다.

오 장관은 “대한민국은 글로벌 벤처캐피탈과 강력한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한국 벤처캐피탈, 한국 정부 간의 협력이 본격화될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오 장관은 지난 9일엔 서울 영등포에서 페루 세르히오 곤잘레스 게레로(Sergio Gonzalez Guerrero) 생산부 장관, 파울 페르난도 두클로스 파로디(Paul Fernando Duclos Parodi) 주한 페루대사 및 수행단과 면담을 갖고 양국 중소기업, 소상공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김승호 기자

## 韓 기업, CES 2025 혁신상 휩쓸어 총 129개 기업, 165개賞 수상 최다

작년 이어 올해도 최다 수상국  
전체 참가기업 기준 44% 차지

내년 1월 7일부터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정보기술·가전 전시회 CES 2025 주최측이 수여하는 CES 혁신상을 한국 기업이 휩쓸 전망이다.

10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에 따르면, 최근 CES 주최사인 전미국소비자기술협회(Consumer Technology Association)가 발표한 CES 2025 혁신상 1차 결과, 전 세계 수상기업 292개 중 129개가 한국 기업이다. 코트라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코트라가 지원한 기업도 55개사가 73개 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올렸다고 밝혔다. CES 혁신상 전체 결과는 내년 1월 7일 CES 전시회 개막일 발표된다. 최종 500여 개사가 수상할 전망이다.

CES 혁신상은 전 세계 혁신제품 중 기술성, 심미성, 혁신성이 뛰어난 제품에 수여하는 상이다. 그 해 첫 출시된 제품만 받을 수 있고, 세계 각지 100여명의 심사위원이 평가한다. 올해는 전례 없이 많은 3400개사가 신청한 반면, 선정 규모는 다소 줄어 경쟁은 훨씬 치열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작년에 이어 올해 최대 수상국이다. 129개사가 165개 상을 받아 기업 수 기준 전체 44.2%, 혁신상 기준 46.1%를 차지한다. 코트라 분석 결과, 33개 카테고리 중 ▲핀테크(4개, 100%) ▲스포츠(3개, 100%) ▲인간안보(12개, 86%) ▲스마트시티(11개, 82%) ▲드론(4개, 67%) ▲메타버스(4개, 65%)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메인 카테고리인 ▲인공지능(24개, 65%) ▲디지털헬스(23개, 53%)에서도 우리 기업이 과반 이상 수상했다.

국가별로는 한국에 이어 미국(64개사), 중국(16개사), 일본(15개사) 순이다. CES 혁신상은 해외 진출을 준비하



CES 2024 한국관 현장 /코트라

는 혁신기술기업에게 의미가 크다. 국제적인 공신력이 높아 제품의 기술성 입증 지표가 되고, 브랜드 인지도와 신뢰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이에 따라 코트라는 지난 2021년부터 기업의 유력 레퍼런스가 되는 CES 혁신상 수상지원 사업을 매년 추진중이다.

CES 혁신상 수상기업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코트라는 수상기업을 위한 지원사업을 내년부터 대폭 강화한다. 1월 미국 CES 전시회에 대규모 통합한 국관(403개사)을 운영하고, 국내에서 CES 혁신상 지원사업을 여러 기관과 협업 추진한다. 이후 북유럽, 인베스트코리아, 인베스트코리아서밋 등 코트라 대표 연례 행사와 연계해 혁신상 기업을 위한 전시관, 상담관을 연중 조성할 방침이다. 또 혁신상 기업은 내년부터 코트라 수출바우처와 인베스트코리아 마켓플레이스 투자유치 지원사업 신청시 참가 우대를 부여한다.

강경성 코트라 사장은 “국제적으로 공신력이 높은 CES 혁신상 수상을 계기로 우리 기업의 혁신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향후 수출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는데 힘을 쏟겠다”며 “우리 기업의 혁신성과가 단순히 수상으로 끝나지 않고, 수출과 해외 진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

## 기보, 디지털 감사 전문성 강화... 국제 공인 자격증 취득

내부 감사인 자격취득 지원 결실

기술보증기금이 디지털 감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국제 공인 자격증을 취득했다.

10일 기보에 따르면 디지털 감사 전

문성을 한층 강화하고 내부 감사인의 전문교육을 적극 지원한 결과 감사실 직원이 ‘국제 공인 정보시스템 감사사(CISA)’ 자격증을 취득했다.

CISA는 국제 정보시스템 감사 통제 협회(ISACA)에서 공인하는 세계적인

로 권위 있는 자격증으로, 정보시스템 감사·통제 및 보안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내부 감사인의 전문역량을 평가하며 정보보안 및 IT 관리 역량을 국제적으로 검증받는 기준으로 취득 과정이 까다롭기로 알려져 있다. /김승호 기자